

한국기독교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 월남 이상재를 중심으로

김권정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I. 머리말

II. 초기 한국교회의 유교 이해

III. 기독교 수용과 사회윤리 인식변화

IV. 기독교 사회윤리의 내용과 그 의미

1. 유교와 기독교의 통합적 이해
2. 초월적 주재자와 중보적 구속자 개념
3. 윤리 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

V. 맺음말

• ABSTRACT •

In the late 19th century, Protestantism was received by the Korean society. During this course, Confucian intellectuals, who were the traditional ruling class, began to join the Christian community. Missionaries of Korean churches at the time observed Confucianism for missionary purposes and showed an amicable attitude towards Confucianism. However, they stated that 'ancestor rituals' were meaningless and classified it as 'idol worship', expressing their negative stance for Confucianism. This belief is displayed in Koreans who accepted Christianity. In the name of becoming 'civilized', they criticized and ostracized Confucianism.

Yi Sang Chai, who became a Confucian intellectual at the end of the Greater Korean Empire, first came into contact with Christianity while working with the Enlightenment Faction. Unlike the negative perspective of the Korean church, he accepted Christianity without opposing the metal world of Confucianism, which made up a part of his life. Rather than severing Confucian ethics, he re-interpreted it as a continuity in the Christian social ethics. He did not perceive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to contradict each other, but rather saw Christianity as an improved, or perfected, version of the Confucian belief. He understood the ethics of Confucianism within the Bible. He perceived that the moral ethics of Confucianism was integrated and perfected within the ethics and moral values, which was a key medium in Christianity. He ultimately placed the Christianity-oriented values in the Kingdom of God, and he perceived that this was expressed through ethics. Thus, from a social ethics standpoint, he aimed for the Kingdom of God as an ethical community.

Key words : Protestantism, Confucianism, Confucian intellectual, moral ethics, Kingdom of God

I. 머리말

19세기말 기독교(=개신교)는 대내외적 동요 속에서 근대문명의 소개와 함께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다. 정부의 금교정책(禁敎政策)과 유교지배층의 배척으로 어려움을 겪던 선교사들은 민중층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펼쳐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중층이 대거 초기 한국기독교 공동체에 입교하였다. 이 후 19세기말 대내외적 격변 속에서 근대 문명의 필요성을 인식한 유교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고, 교회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¹⁾ 유교지식인의 입교(入敎)는 전통적 지배층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주었다.

유교지식인들의 기독교 수용은 새로운 종교 상징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이들이 받아들인 기독교가 피상적인 종교적 외피가 아닌 이상, 그것은 기독교적 규범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는 기존의 유교적인 것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는 기독교 신앙의 형태로 나타났다.²⁾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입교한 유교지식인들이 기독교적 사회윤리상(社會倫理像)을 수립하고 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말 이래 기독교적 삶의 규범으로 서구의 사회윤리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한말 유교지식인으로 활동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일제하 대표적인 민족·사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1850~1927)를 중심으로 이

1) 김권정,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수용」,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엮음, 『한국의 기독교』, 겹보기, 2001, 17~18쪽.

2)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199~203쪽.

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니었고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현실변혁을 추구하던 실천가였다.³⁾ 특별히 그의 삶이 주목되는 것은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나 자신의 삶을 구성해 온 유교적 도덕 윤리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대문명의 압박 속에서 기존의 유교적 전통문화와 윤리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며 기독교를 절대시하던 당시 다수의 한국인 기독교 개종자와 달랐던 것이다. 그는 오히려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를 기독교적 사회윤리 차원에서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기독교적 윤리를 확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당대 어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윤리적 영향을 미쳤다는데 점에서 이상재에 대한 검토는 그 현재적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초기 한국교회의 유교 이해

1890년대에 들어 선교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회성장이 크게 나타났⁴⁾ 급격한 기독교 수용과 확산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교지배층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양이(洋夷)’라는 문화적 인식과 ‘무부무군’(無父無君)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였다. 예컨대, 1896년 학부대신 신기전은 『유학경위(儒學經緯)』란 서적을 통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책에서는 “근세의 서양 사람들의 이른바

3) 민족운동가 및 사회운동가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월남 이상재선생 동상건립연구위원회 편, 『月南 李商在研究』, 路出版, 1986; 전택부,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 출판부, 2001; 김명구, 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4) 조선정부는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일제에 의해 식민지화될 때까지 정부는 지배계층의 반발이 두려워 기독교 포교 자유를 선언하지 못했다.

야소교(耶蘇敎)가 비리천망(卑俚淺妄)한 이속지루(夷俗之陋)로서 더불어 변론할 가치가 없다고⁵⁾고 하면서, 기독교가 윤리측면에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난하였다.

유교와 관련된 문제는 당시 초기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교지식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교 지식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전히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적 충돌 현상을 일으켰고, 교회가 분열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⁶⁾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유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교가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한국사회의 법률, 교육, 예절, 사회경제, 그리고 도덕을 형성시키는 데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선교에서 활용할 부분을 찾기 위해 한국사회의 유교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은 개인 신앙과 관련된 종교 차원보다 유교를 정치, 윤리, 전통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존스 선교사는 유교를 ‘황제 집안의 종교’, ‘국가 종교’라고 보았다.⁷⁾ 그것은 유교가 왕실과 지배계층의 종교로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교가 당시 한국인의 사상과 생활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한국인의 가치관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유교가 한국인의 사상과 생활을 형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으며, 종교라기보다 “효도에 기초를 둔 하나의 윤리체계”로 이해하였다.⁸⁾ 이렇게 선교사들은 유교에

5)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468~469쪽.

6) 이에 대해 김권정, 「초기 한국교회와 신분갈등」, 『韓國教會史學會誌』11집, 한국교회사학회, 2002를 참조할 것.

7) G.H. Jones, "The Native Religions," *Korea Mission Field*, Jan. 1908, p. 12.

8) H. G. 언더우드, *The Call of Korea*, 이광린 역, 『한국개신교 수용사』, 일조각, 1989,

대해 한국사회 속에서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여지는 ‘정치, 윤리체계’로 이해하였다.

이와 함께 선교사들은 민간신앙이나 불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교육열과 지적 우수성이 유교 경전 교육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유교가 강조하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윤리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교가 다섯 가지 덕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에서도 다섯 가지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규범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⁹⁾ 또 유교가 개인생활, 가족, 국가, 우주, 네 영역에서 도덕을 통제하며 개인이 마음과 몸을 수련하지 않으면 가정에 효가 없으며 가정에 효가 없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러나 이런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은 유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것은 ‘조상제사’와 관련하여 유교를 ‘종교’로 규정하고, 이를 의미없는 ‘우상숭배’의 한 형태 파악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일 선교사는 조상제사 관습을 한국의 ‘국가 생활’로 보았으며, 왕에서 종에 이르기까지 조상숭배의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조상제사 행위는 유교에서 ‘필수적’이며 보편적 관습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이 미국식으로 보면 마치 무신론자이고, 이교도요 부랑자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¹¹⁾

62쪽; 김홍수, 「호레이슨 G.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1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3, 35쪽.

9)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94~195쪽.

10) 김홍수, 「19세기말~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종교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1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3, 25~26쪽.

11) 류대영, 「국내 발간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종교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2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7, 166쪽.

물론 유교의 조상숭배 집착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번영’과 ‘행복’에 이르는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삶과 희망에 대한 전반적인 상도(常道)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상제사는 영생을 바라는 한국인의 소망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아선호 및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폐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보았다. 대(代)를 이어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 사후에도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제사는 영생을 위한 조건이었고, 제사는 아들에 의해서만 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¹²⁾ 여기에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여성비하관(女性卑下觀)이 출발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조상제사’라는 행위를 현실 속에서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인들이 지닌 ‘최대의 우상’이며, 한국선교에 ‘최대 장애물’이라고 파악하였다.¹³⁾

부정적 태도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지식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승만은 “대한에 자초로 유교가 있어 정치와 함하여 행하여 세상을 다스리기에 극히 선미한 지경에 이르러 본 즉 사람마다 이 교만 실상으로 행하면 다 이전같이 다시 되어 불 줄로만 생각하여 다른 도리는 구하지 않고 다만 이 도를 사람마다 행치 않는 것만 걱정하니”¹⁴⁾라고 하면서, 유교가 기독교에 비해 ‘하등(下等)’이란 차별 인식을 드러냈다. 윤치호는 역시 산업문명을 발달시킨 거대한 힘이 기독교라는 인식하에서 농업중심인 유학의 전통적 세계가 반문명적이고 힘에 열등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¹⁵⁾ 이어 다른 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12) J. Z. Moore, “Sacrificing to the Dead”, *Korea Methodist*(Dec. 1904), p. 15.

13) J. S. 게이, 신복룡 역, *Korea in transition*,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51~54쪽.

14) 이승만, 「예수교가 대한 장취의 기초」, 『신학월보』, 1903년 8월, 330쪽.

15) 『尹致昊日記』, 1890년 6월 8일자.

파괴하는 불가지론적인 가르침으로 오직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며, 인간에게 시작하여 인간에서 끝내는데, 인간의 이기심·교만·독재·여성비하의 열매를 맺는 윤리체계가 결코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없다¹⁶⁾는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적 동기에서 유교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종교에 비해 부분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상제사’에 대해 ‘허탄한’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그 근본이 되는 유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인식은 유교가 종교로서 기력을 잃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과거 종교’, 즉 ‘패배자’ 종교라는 당시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교지식인들 가운데는 이런 차별적인 관점을 넘어 기독교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유교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근대적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III. 기독교 수용과 사회윤리 인식변화

19세기 중엽 이래 동아시아 사회는 서구제국주의의 힘앞에 중국의 몰락 및 불평등 조약 등의 충격을 받고 크게 동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 붕괴와 몰락은 수천 년간 유지되던 유교적 세계관과 삶의 윤리적 방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구의 압도적인 근대문명의 힘 앞에 서구 윤리와 도덕이 동아시아인에게 강제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근대문명 수용론자들은 전통적인 유교 도덕 윤리를 비판·부정한 반면에 서구의 윤리를 수용하고

16) "Confucianism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Nov. 1895.

절대화하였다.¹⁷⁾

그런데 이런 흐름과 다른 면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월남 이상재였다. 물론 그 역시 근대 문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 유교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매도(罵倒)하던 인물들과 달리 유교를 인정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근대적 사회윤리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이같은 일련의 작업이 기독교의 수용과 그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삶은 크게 기독교 수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상재는 1850년 10월 충남 한산에서 출생하였다. 전통적인 유학을 익히며 ‘유교지식인’으로 성장하였다. 과거 급제를 통해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꿈꾸던 그는 부패한 관료제 모습과 과거제의 부정을 목도하며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였다. 이 때 그는 당시 개화관료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박정양(朴定陽)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박정양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형식화된 유학에서 벗어나 실용성을 추구하는 실학(實學)을 접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근대문명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지향하는 개화관료파로 성장, 활동하기 시작하였다.¹⁸⁾

1880년대 박정양을 따라 그는 일본과 미국을 통해 근대문명을 체험하고, 문명의 근본적인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정신문명이 곧 물질문명을 낳는 근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체류 첫 해에 정신문명이 없고 외형적인 힘만 의존한다고 비판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미국문명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물질

17) 이에 대해서는 「특집: 한국사회의 근대성과 종교문화」, 『종교문화비평』 창간호, 2002;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류대영, 「한말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의 역사』 22, 2005를 참조할 것.

18) 전택부, 앞의 책, 16~19쪽.

문명을 낳게 한 정신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¹⁹⁾ 그 결과 그는 미국사회가 단순히 힘만을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체계와 도덕이 작동하는 나라임을 나름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핵심이 기독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서양 문명의 근원적 근거가 된다는 서양의 도(道),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동양의 유교적 도덕 윤리가 불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간을 초월해 미국의 가치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²⁰⁾ 이런 차원에서 이상재는 유교적 도덕 윤리는 ‘시공(時空)’을 넘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동양의 유교적 도덕 윤리는 불변하며 미국이 갖고 있는 서구 가치, 즉 기독교가 동양의 유교적 도덕과 일정부분 공유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는 중국인 관리로부터 미국 문명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관리로부터 한문 신약성경을 건네받은 그는 미국 문명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큰 기대감을 갖고 여러 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²¹⁾ 성경 속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및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그가 보기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가득했다. 크게 실망한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어리석게 느껴졌고, 그래서 기독교가 ‘사학(邪學)’이며, ‘요술(妖術)’라는 결론에 이르렀다.²²⁾ 당시 그의 기독교 인식이 잘 드러난 것이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 활동 때 일어났다. 기독교인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 독립협회 고문이 되었던 서재필 박사가 이를 계기로 기독교를 선전할 기회로 삼으려

19) 이상재, 「奇承倫諸昆季」, 『月南 李商在研究』, 369쪽.

20) 김명구, 앞의 논문, 71~72쪽.

21) F. Brockman, “Mr. Yi Sang Chai”, *Korea Mission Field*, Aug. 1911, p. 217.

22) 이덕주, 『새로 쓴 한국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94쪽.

하자 그가 이를 저지하여 독립협회를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은 것이다.²³⁾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기독교를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유가적 도덕과 윤리를 문명의 도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그는 유교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좌절 이후, 잠시 지방으로 피신하여 몸을 숨기고 있던 중 ‘국사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체포, 한성감옥에 억울하게 수감되었다. 그 인생의 두 번째 큰 좌절이었다. 옥중 생활은 그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고립시켰다.²⁴⁾ 당시 수감된 한성감옥 환경은 사람이 거처하기에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1902년 8월에는 콜레라의 창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나가기도 하였다.²⁵⁾

그러던 이같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을 내면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기독교적 도덕·윤리에 눈을 뜬 점이다. 옥중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함께 투옥된 동료들 중에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보게 되었다.²⁶⁾ 또 이승만·신홍우 등이 이미 개종하여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가끔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²⁷⁾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교(儒敎)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훌륭한 교훈이 많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성경이 외에 도서실에서 기독교관련 서적을 빌려 읽으면서 더욱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이런 그에게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수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신

23) F. Brockman, “Mr. Yi Sang Chai”, p. 217.

24) 葛弘基, 『月南李商在先生略傳』, 公報室, 1956, 75쪽.

25) 이승만, 「옥중전도」, 『신학월보』, 1903년 5월, 183쪽.

26) 김정식, 「信仰의 動機」, 『聖書朝鮮』, 1937년 5월호.

27) 전택부,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 73~74쪽.

비한' 종교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²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허무맹랑'하게 보이던 성경구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유가적 지식을 비교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읽기 시작하였다.²⁹⁾ 이 과정 속에서 평생 유교의 가르침 및 도덕 윤리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식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자로만 읽던 유교의 도덕 윤리가 성경의 빛에서 볼 때 오히려 더 깊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리를 찾던 요순과 공맹이 그리스도보다 앞서 살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믿었던 하느님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들은 비록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비로소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³⁰⁾ 이상재는 공자와 맹자의 글 속에 나오는 '하늘'·'상제(上帝)'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들 유교의 성군들이 섬긴 대상이 바로 '육신'(-인간)으로 세상에 오기 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로 수용하였다.³¹⁾ 즉 그는 공자와 맹자도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공자가 제자들이 사후(死後) 물음에 대해 "이 생의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사후의 것을 어찌 알리오"하고 "모르겠다"고 했던 것도 이해가 되었다. 이제는 그가 공자와 맹자가 모르고 섬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수용하기 이전, 이상재는 유교의 도덕윤

28) F. Brockman, "Mr. Yi Sang Chai", p. 218.

29) F. Brockman, "Mr. Yi Sang Chai's Services to the Y.M.C.A.", *The Korea Mission Field*, Jun. 1927, pp. 116~117.

30) F. Brockman, "Mr. Yi Sang Chai", 219쪽.

31) 이덕주, 앞의 책, 202쪽.

리를 절대화하며 기독교와 같이 신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교의 도덕 윤리 차원에서 서구 문명과 미국 문명을 접근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수용 이후에는 그는 기독교의 틀 안에서 유교의 도덕윤리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유교와 기독교를 서로 모순된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유가사상의 보완 또는 완성으로 파악하는 보유론적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기존의 유교사상과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기독교의 개종을 전후로 그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였다.

그의 이런 변화는 이후 그의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사회개조와 실력양성이란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³²⁾ 그는 민족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비분강개하며 직접 저항하기보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덕과 윤리 성숙을 통한 사회개조를 지향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말과 일제 시대에 그는 YMCA운동과 3.1운동, 그리고 정치 사회 및 언론운동 등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주체성을 지키고,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청년층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열정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IV. 기독교 사회윤리의 내용과 그 의미

1. 유교와 기독교의 통합적 이해

이상재는 유교와 기독교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유교사상의 보완 내지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가

32) 그의 구체적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선택부, 앞의 책과 김명구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서구에서 온 기독교 신앙 및 도덕 윤리를 기존의 유가사상과 연속적으로 파악했으며,³³⁾ 17~18세기 서학을 수용했던 유교적 기독교인들의 사회윤리사상 흐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³⁴⁾

유가(儒家) 지식인으로 기독교를 수용한 이상재는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스스로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사회윤리관을 정립하였다.³⁵⁾ 이같은 ‘자기주도형’ 탐구 방식은 그가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지향한 도덕 윤리가 기독교 안에서 연속되고 통합되어 있다는 주체적 인식의 배경이 되었다.³⁶⁾ 이를 통해 그는 유교적 이상과 가치의 실현이 기독교 안에서 성취(成就)되고 있다는 ‘기독교 포괄주의’라는 통합적 입장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그의 인식은 1920년대 초 당시 사회의 큰 논란이 되었던 제사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났다.

1920년대 초 제사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부모제사를 ‘우상숭배’로 금할 뿐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날 사진을 앞에 놓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경직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 이상재는 제사문제에 대해 묻는 신문기자에게 “예수는 서양 사람의 예수도 아니요, 또한 동양 사람의 예수도 아니요, 온 세계의 예수이며,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오직 그의 가르침과 또한 그의 높고 밝은 인격만 사모하고 우러러 볼 뿐”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던 제사문제에 대해 제사가 죽은 자를 산 사람 모시듯 하는 부모에 대한 경배일 뿐이지 ‘신앙’

33) 김명구, 앞의 논문, 109~110쪽.

34) 조선후기 수용된 유교 지식인사회의 기독교 윤리사상에 대해서는 오지석, *조선 후기 지식인사회의 서학 윤리사상 수용과 이해*: 영혼, 신,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을 참조할 것.

35) F. Brockman, “Mr. Yi Sang Chai’s Services to the Y.M.C.A.”, 117쪽.

36) 이상재, 『眞平和』, 『月南 李商在研究』, 256쪽.

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제사 참석을 하지 않거나 제사를 지내면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는 ‘빈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비판하였다.³⁷⁾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죽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는 ‘효성’의 표현으로 반대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일반적으로 유교적 전통문화를 단절적으로 생각하는 당시 일반적 교회의 견해와 달리 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유교의 ‘형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나, 그 가치나 정신을 기독교적 도덕 윤리 안에서 연속되고 통합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민족문화로서 큰 자긍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³⁸⁾

이렇게 그는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 및 맹자와 같은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가의 도덕 윤리가 자신이 수용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고, 기독교의 중심매체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 속에서 통합, 완성되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런 인식 위에서 그는 근대적 문명을 앞세우고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각 개인 및 민족공동체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도덕력이 성취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힘으로 나라와 민족이 정돈되고 나아가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³⁹⁾

이것은 그가 당시의 지배적인 사조인, 물질적인 근대 문명의 힘이 곧

37) 『東亞日報』1920년 9월 1일자.

38) 이상재, 「진리를 구하라」, 『東光』, 1926년 12월호, 7-8쪽.

39) 이상재, 「조선청년에게」, 일동축음기 녹음, 1926. 11.

‘사회정의’(社會正義)라는 약육강식(弱肉強食)·우승열패(優勝劣敗)·적자생존(適者生存)의 ‘사회진화론적’(社會進化論的) 태도를 비판하고, 물질적 힘이 오히려 기독교의 불변적인 도덕의 힘을 토대로 나타날 때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인식의 근거가 되었다.⁴⁰⁾ 또 그가 미국을 보면서 근대국가 힘의 원천이 기독교 도덕의 힘에서 나오고 있다고 파악하고 미국처럼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도덕의 힘이 사회전반에 자리 잡아야 진정한 문명국으로 그 힘이 정의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⁴¹⁾

이처럼 이상재는 당시 전통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부정하며 근대문명을 절대적으로 긍정했던 당시 근대 한국 지식인들과 달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민족·사회의 진로가 전통문명과 근대 문명을 포괄하는 기독교적 도덕력을 통해 나아가야 진정한 문명화 및 상실당한 국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같은 그의 인식은 근대문명이란 미명아래 한국인의 사회윤리적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파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체적인 윤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초월적 주재자와 중보적 구속자 개념

이상재는 과거의 기독교가 시공을 초월해 불변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후 그는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모델과 완성이 오히려 기독교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기독교 개종 이후 그의 사회윤리적 사상의 변화는 유가의 가치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만물의 창조주와 주재자로서 상제(上帝)가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0) 이상재, 「我韓國民의 當然한 義務」, 『皇城新聞』1909년 11월 4일자.

41) 李光溍, 「現代人의 奇人 李商在翁」, 『東光』, 1926년 11월호, 7쪽.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원래 유가에서는 천(天)이란 내재성은 강조하나 창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초월성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⁴²⁾ 그러나 이상재는 만물의 창조주와 주재자로서 상제, 즉 하나님과 인류를 구원할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였다. 그는 “나의 요구(要求)에는 평화(平和)는 차등(此等)의 가장적 화평(假粧的 和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世界)를 창조(創造)하신 시(時)에 우리 인류(人類)에게 충만(充滿)하여 부족(不足)함이 비여(畀與)하신 진정(眞正)한 평화(平和)이라 하노라 진정(眞正)한 화평(和平)이란 무엇인가. 첫째 인애(仁愛)요 둘째 용서(容恕)니 하나님은 항상(恒常) 우리 인애(仁愛)를 인애(仁愛)하시며 용서(容恕)하시나니 우리 인류(人類)도 하나님의 인애(仁愛)와 용서(容恕)를 양체(仰體)하여 인(人)과 인(人)이 서로 애(愛)하며 서로 서(恕)하여 타인(他人)의 권위(權威)·세력(勢力)·금전(金錢)·명예(名譽)를 아(我)에 유(有)한 것과 같이 존중시(尊重視)하여 기독(基督)이 자기(自己)를 희생(犧牲)하여 인(人)의 죄(罪)를 대속(代贖)하신 진의(眞義)를 불망(不忘)하지니 진평화(眞平和)의 본원(本源)은 애(愛)와 서(恕)에 재(在)하다 하노라. 동양선성(東洋先聖)도 부도(夫道)는 인서(仁恕)뿐이라 하셨나니라”⁴³⁾고 하였다.

즉 이상재는 창조의 하나님과 역사의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다. 기독교의 도덕을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으로 해석하며 기독교 도덕이 중심이 되어야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 이런

42) 류순하, 「유교」, 『선교와 신학』 6,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0, 26~28쪽; 김영일, 「한국교회 성장과 유교문화」,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 195~198쪽.

43) 이상재, 「眞平和」, 『月南 李商在研究』, 256쪽.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어 그는 유가의 어짊과 용서를 의미하는 인서(仁恕) 교훈 속에서도 기독교와 통하는 도덕심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위해 모든 인간에게 충만하게 도덕을 부여하신 것으로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도덕은 창조된 세계의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신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인류(人類)는 오히려 상제(上帝)의 지(旨)를 어기어 강(強)을 믿고 약(弱)한 것을 빼아스며 부(富)함을 빙자(憑藉)하여 빈(貧)을 업수이 여기나… 다시 죄악세계를 거의 이루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어 그는 “석일(昔日)과 같이 홍수(洪水)로 멸망(滅亡)을 하심이 아니라 인(人)을 택(擇)하시고 인(人)을 명(命)하시라 인(人)을 회오(悔悟)케 하시며 인(人)을 개조(改造)케 하실 때 차(此)와 같은 상제(上帝)의 구주전란(歐洲戰亂)의 풍운(風雲)이 비로소 그친 금일(今日)에 전세계(全世界)에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가”라고 하였다.⁴⁴⁾ 그는 1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본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증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뜻을 어길 때마다 세상을 멸망시키고 다시 재건했다고 보았다.

또 그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는 본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이 뜻을 어기고 죄악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였고, 1차 세계대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도덕으로 개조된 세계를 건설하라는 뜻을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재는 일본 역시 한국을 침략, 강점하여 고통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강탈한 것이 외적인 힘, 물질문명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44) 이상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뇨?」, 『百牧講演』 2집, 博文書館, 171~172쪽.

이 주신 권리를 빼앗은 행위이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침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⁴⁵⁾ 일본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한민족이 곧 자주적인 독립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 근대문명이 정신적 도덕문명이 결여된 외형적 힘만을 추구하는 문명인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강자의 도덕만을 주장하는 이기적 문명이기 때문이었다.⁴⁶⁾ 또한 일본이 “자기 민족만 주장하고 타민족은 不願”하는 것으로 “洪恩을 무시하여 眞理에 得罪”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⁴⁷⁾ 즉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의와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불순종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⁴⁸⁾

이렇게 이상재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 중보적 구속자의 섭리를 도덕이란 매체를 통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초월적 주재자 개념과 창조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그의 사회윤리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윤리 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

기독교 개종이후 이상재는 기독교 속에서 자신의 이상(理想)과 유가의 원형과 실천, 그리고 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그는 기독교 개종이후 기독교가 유가적 이상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45) 李商在, 「나의 文明의 解釋」, 『文明』, 1925년 12월호.

46) 「朝鮮牧師의 日本觀」, 『福音申報』, 1911년 8월 24일자.

47) 李商在, 「青年이여」, 『青年』, 1926년 11월호, 1쪽.

48) Yi Sang Chai, “What I would if I were a Young Missionary”, *The Korea Mission Field*, Nov. 1923, p. 258.

된 것이다. 그가 추구하던 인화(人和)로 연결된 세계가 실제로 기독교에 그 본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상재가 유가적 이상세계를 완성시켜 줄 원형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나라’였다. 그는 하나님나라를 모든 기독교적 가치의 궁극적 목표로 파악하였다. 그에게 하나님나라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중심되는 세계를 의미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 속에서 불변하며, 그래서 하나님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보았다.⁴⁹⁾

그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 ‘도덕 윤리란’ 가시적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파악하였다. 그래서 도덕 윤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인식하에 그는 하나님나라는 기독교의 도덕이 중심이 되는 ‘유기체적’ 윤리공동체로 이해하였다.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인식될 때 동양의 전통적 도덕 가르침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게 되었다. 도덕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면, 전통적으로 도덕 윤리를 중시했던 한국은 당연히 문명국일 수밖에 없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재가 말하는 도덕 윤리는 기독교의 중심된 원칙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세계라는 공간과 전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이기도 하였다.⁵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명을 가졌던 한민족 공동체는 기독교화를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진 민족이 되는 것이다.⁵¹⁾ 한민족공동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도덕 윤리를 지키

49) 김명구, 앞의 논문, 214쪽.

50) 李商在, 「祝新年」, 『青年』, 1925년 1월호, 3쪽.

51) 李商在, 「宗教界를 爲하여」, 『開闢』, 1921년 1월호, 18쪽.

고 성숙시켜 갈 때, 역사의 변혁이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역사의 변혁은 한민족 공동체의 독립(獨立)은 물론 미래의 완성된 하나님나라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각 시대마다 또는 지역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사명과 책임이 따로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민족을 넘은 사명과 책임이 역사를 주재하는 하나님의 주권 및 섭리아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⁵²⁾ 그러므로 그 사명과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윤리가 중심이 되는 세계, 즉 하나님나라를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⁵³⁾

이렇게 이상재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유가적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한민족이 기독교의 도덕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때, 일제의 지배아래서 한민족의 독립이 성취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⁵⁴⁾ 즉 기독교의 도덕이 중심이 되는 변혁적 사회가 진정한 하나님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은 이미 왔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이 땅 위에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세계,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보일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개인 구원적 초월성이 아니라 민족현실과 역사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⁵⁵⁾ 또한 그는 기독교의 도덕력이 병든 세계를 고치고 약자나 약소국에 자유와 권리를 가져

52) 李商在, 「警告(東亞日報)執筆芝宇者」, 『月南李商在研究』, 260~261쪽.

53) 李商在, 「青年이여」, 『青年』, 1926년 2월호, 3쪽.

54) 이상재, 「조선청년이여」, 일동축음 녹음, 1926. 11.

55) 김명구, 앞의 논문, 151쪽.

다주는 역사변화의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⁵⁶⁾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궁극적 주재자요, 역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역사를 주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의(義)의 승리와 통치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민족독립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기독교적 도덕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였다.⁵⁷⁾ 즉 그는 하나님나라를 단순히 지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초월적인 것인 동시에 지상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어질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나라를 기대하며 새로운 세계를 위해 특히 청년들에게 그 사명과 책임을 기대하였다.⁵⁸⁾ 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믿으며, 청년세대가 앞으로 살게 될 새로운 사회의 주역임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것을 분발, 격려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낙담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라는 미래를 보며 청년들에게 낙관적 희망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재는 전통적인 유학을 수학하고 유교지식인으로 성장하였다. 근대

56) 李商在, 「余의 經驗과 見地로브터 新任宣教師諸君의게 告誡」, 『神學世界』 8월 6호, 29쪽.

57) 이상재, 「道德의 建設」, 『東亞日報』, 1922년 4월 1일자.

58) 李商在, 「祝新年」, 『青年』, 1925년 1월, 3쪽.

문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그는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개화관료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촉하였다. 기독교를 배척하던 당시 대개 유교 지식인과 달리 그는 기독교를 통해 미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고, 미국사회가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교적 도덕 윤리가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유교의 윤리차원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 좌절을 경험한 뒤에 옥중에서 체험과 성경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에 달라졌다.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유교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전통적 유교의 도덕을 부정하던 당시 일반 근대지식인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이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하였다. 유교와 기독교를 연속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현의 가르침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유가의 도덕 윤리가 기독교 내에서 발견되며, 기독교 중심매체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 속에서 통합, 완성된다고 파악했다. 기독교 중심적 가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나라에 둔 그는 그것이 가시적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도덕이라 보았다. 이렇게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 유가적 인식을 그대로 계승했고, 기독교의 도덕 윤리가 중심이 되는 변혁적 사회가 진정한 하나님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차원에서 이상재는 한국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유교지식인들이 사회윤리 차원에서 기독교적 사회윤리를 어떻게 계승, 수용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이상재를 통해 한국교회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살펴보았다. 한국교회 초기 기존의 지배문화 및 윤리의 담론이었던 유교적 정체성 속에서 기독교를 수용했던 많은 개종자들은 유교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초기 개종자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사회윤리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유교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의 대표적 신학자 장공 김재준과 같은 인물 역시 유교적 바탕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의 신학과 사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⁵⁹⁾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역사와 문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문적 탐구가 요구된다.

59) 이에 대해 김경재 외, 「장공 김재준의 생애와 신학」, 『신학사상』 제50호, 한국신학연구소, 1985를 참조할 것.

참고문헌

<1차 자료>

『皇城新聞』 『東亞日報』 『聖書朝鮮』 『신학월보』 『福音申報』

『青年』 『開闢』 『東光』 『神學世界』 『尹致昊日記』 『百牧講演』

Korea Mission Field Korea Methodist The Korean Repository

<저서 및 논문>

H. G. 언더우드, *The Call of Korea*, 이광린 역, 『한국개신교 수용사』, 일조각, 1989.

J. S. 게일, 신복룡 역, *Korea in transition*,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葛弘基, 『月南李商在先生略傳』, 公報室, 1956.

김권정, 「초기 한국교회와 신분갈등」, 『韓國教會史學會誌』 제11집, 한국교회사학회, 2002.

_____,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수용」,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편, 『한국의 기독교』, 겹보기, 2001.

김경재 외, 「장공 김재준의 생애와 신학」, 『신학사상』 제50호, 한국신학연구소, 1985.

김명구, 「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영일, 「한국교회 성장과 유교문화」,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

김홍수, 「호레이슨 G.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9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3.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종교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9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3.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_____, 「국내 발간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종교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6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7.

류순하, 「유교」, 『선교와 신학』 제6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0.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오지석. 『조선 후기 지식인사회의 서학 윤리사상 수용과 이해: 영혼, 신,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월남 이상재선생 동상건립연구위원회 편. 『月南 李商在研究』. 路出版, 1986.

이덕주. 『새로 쓴 한국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전택부.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논문투고일 : 2010. 10. 31

심사개시일 : 2010. 11. 16

게재확정일 : 2010. 12. 03

• 국 문 초 록 •

19세기 말 전통 지배층인 유교 지식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다. 당시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선교적 동기에서 유교를 관찰하면서 유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러나 이들은 '조상제사'에 대해 의미 없고 '우상숭배'로 규정하였고, 이런 차원에서 유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기독교를 수용한 한국인들도 '문명화'라는 차원에서 유교를 비판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말 유교지식인으로 성장한 이상재는 개화파로 활동하며 기독교를 처음 접촉하였다. 일반적 한국교회의 부정적 입장과 달리 그는 자신의 삶을 구성해 온 유교적 정신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그는 유교적 윤리를 기독교적 사회윤리 차원에서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유교와 기독교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유교사상의 보완 내지 완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유교에서 말하는 윤리를 성경 말씀 속에서 이해하였다. 유가의 도덕 윤리가 기독교 중심매체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 속에서 통합, 완성된다고 파악했다. 기독교 중심적 가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나라에 둔 그는 그것이 도덕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사회윤리 차원에서 그는 윤리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를 지향하였다.

주제어 : 개신교, 유교, 유교지식인, 도덕윤리, 하나님 나라
